

# 조선 최고 침구 명의 '허임 선생' 아시나요

선조~인조 때 어의 지내... '침구경험방' 편찬 일본·중국 등 영향  
나주시 전라도 천년 인물 발굴...신숙주·최부 등 이어 스토리텔링

나주시가 조선시대 최고 침의(鍼醫) 허임(許任)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한다. 시는 그동안 '신숙주', '최부', '나대용' 등 지역 출신 역사인물 발굴에 힘써왔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침구경험방'을 편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침구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과 동시대를 살아온 인물이다. 허임의 출생지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주에서 노비

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록에 따르면, 선조 35년(1602년) '임의로 내침의 허임이 사팔로 물러가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광해군 2년(1610년)에는 '침의 허임이 전라도 나주 집에 가 있다'고 명사되어 허임의 나주 연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주시는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지역 출신의 침구명의 허임에 대한 역사성 발굴과 나주에서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이야기로 엮어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허임과 관련한 ▲사적 조사 및 역사적 의의 재조명 ▲저작 정리 및 미공개본 발굴조사 ▲침구술의 특징 ▲허임 전후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의약인



드라마 '명불허전'의 한 장면.

물 연구 ▲사적비 건립안 또는 기념물 조성안 등을 제시한다. 특히 허임의 나주 연구소에 대해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허임의 어머니가 '순천 박씨'라는 점을 주목, 나주의 순천 박씨 사족 가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순천 박씨 집성촌 중 나주목에 속한 지역인 원정면(신북면) 척동, 곡강면(동강면), 세화면(세지면) 세 지역 마을 탐사를 통해 동시

대 가계 기록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창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은 "허임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침의로, 침과 뜸에는 당대 최고의 명성을 얻은 3대 명의에 속하는 역사적 인물"이라며 "나주에 연고를 둔 허임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이번 학술연구용역은 전라도 정명 천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발맞춰 시의적절하고, 문화관광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를 빛낸 지역 출신 위인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일은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으로써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허임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이에 걸 맞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과 연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나주시, 에너지밸리 청년 일자리 창출 박차

전기기사 양성과정 수료식 성했다. 나주시가 에너지밸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기기사 양성과정' 수료식(사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전기기사 양성과정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밸리 연관기업 등 지역 산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 및 현장실무 중심의 인력양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수료생 13명 전원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달

성했다. 시는 지난해 혁신산단 등 지역 산단 입주기업 인력수요에 대비한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을 실시해 총 9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중 8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도 배전기능 신규 일자리, 에너지산업 가능융합 전문가 양성 등 5개 과정에서 전문인력 100명 배출을 목표로 현장실습 중심 기술교육을 실시해 지역민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기사 과정을 수료한 김용상 씨는 "교육을 통해 취업에 대한 경쟁력과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



까지 도와준 일자리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산단 이전 기업의 인력채용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해 청년 및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 문제 현장소통

시민 대상 방문설명회 나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현장 소통에 나섰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 논란을 해소하고자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됐지만 8개월

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사실을 왜곡·유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열병합발전 사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찾아가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다음달 4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화·수·목 3일간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10여명 이상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를 통해 희망일 1주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광주전남 지사는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면 시설 견학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 인구 10만 넘는 나주시 1개국 신설

비서실도 확대... 조직개편안 내달 3일 시의회 제출

나주시가 인구 10만명이 넘어섬에 따라 1개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내부 청문회와 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1국, 2국, 3국을 증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무국, 건설국,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된 나주시의 직제에 국(局) 1개가 신설된다. 국장(서기관) 직급에 이어 2개국 증설에 따른 과장(사무관) 자리도 2개 늘어난다. 조직이 확대되는 이유는 나주시 인구가 10만명(8월 기준 11만20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부시장 직급도 현재보다 한 단계 상승해 부이사관(3급)으로 조정된다.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현재 4급인 조재운 부시장이 3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국은 '미래전략산업국'으로

혁신도시를 비롯해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모두 7개과에 31개팀으로 구성된다. 민선 7기 주력사업인 혁신도시 지원, 도시재생, 역사문화관광, 일자리, 에너지 신산업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비서실이 단순 부속실 기능을 넘어 2개 팀을 갖춘 과(課) 체제로 강화된다. 기존의 시민소통실 명칭이 소통정책실로 바뀌고 부시장 직속에서 시장 직속으로 옮기고 6급인 비서실장 직급도 5급으로 상향한다. 나주시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직원과 추진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소통정책실을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정책기능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혁신도시 버스정류장 무료 와이파이 존 구축

나주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혁신도시 주요 버스정류장에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망을 확대 구축했다.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시비 4억 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48개소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존(zone)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들은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휴대폰 네트워크 설정- Naju-Free-WiFi'를 선택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시는 문재인 정부 통신비 절감 정책에

발맞춘 시민중심 체감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민선 6기부터 관내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관공서 35개소(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광지 9개소(금성관 등), 공공시설 2개소(목사고을시장, 청소년수련관) 등 46개소에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인구 유동이 많은 빛가람 중앙호수공원 산책로, 빛가람 전망대와 더불어 이번엔 버스정류장(48개소)까지 와이파이 존을 확대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 '나주시민 원탁회의' 참여자 다음달 5일까지 모집

나주시는 다음달 18일 개최하는 '제6회 나주시민 원탁회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나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탁회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10~15개조로 나누어 원탁에 둘러앉아,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 공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다. 특히 각 원탁에 배치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조원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는 등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돕고, 취합된 의견을 내부 웹망을 활용해 참석자 전원

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진행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에 이어 6회째를 맞는 원탁회의는 민선7기 시청 핵심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혁신도시 시즌2'를 소재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탁회의는 시민이나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5일까지 시청 시민소통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재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단일급),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매주 토요일 음·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충흥동 270-15)

연락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웅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